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의좋은 형제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가난하지만 서로 돕는 형과 아우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다.
• **주제** : 우애

핵심어 형제, 우애, 농사, 벼농사

한국문화 • **목표** : 한국의 주식인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운다.
• **요소** : 벼농사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말의 재미를 느낀다.
• **단어** : 벼, 벧단, 쓱싹쓱싹, 차곡차곡
• **표현** : 벼를 쓱싹쓱싹 잘라요.
벧단을 차곡차곡 쌓아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의좋은 형제' 이야기예요.

'의가 좋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형제나 친구 사이가 좋은 것을 말해요.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싸우지 않고 아껴줘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줘야 해요. 의좋은 형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의좋은 형제'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형과 동생이 살았어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이 생기면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며 양보했어요.

“형님, 오늘은 형님 논에 가서 벼를 심을까요?”

“아니야, 아우 논에 먼저 벼를 심자!”

형과 동생은 농사일도 서로 도와 가며 했어요. 두 형제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피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형님 덕분에 올해도 벼가 잘 자랐어요.”

“아니야, 아우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한 덕분이지.”

잘 자란 벼를 보며 형과 동생은 서로 고마워했어요.

“자, 오늘은 아우 논에 가서 벼를 거두자.”

“아니에요, 형님. 형님 벼를 먼저 걷어요.”

형과 동생이 싸울 때는 서로 양보할 때 뿐이었어요. 계속 서로 양보를 하다가 결국 동생은 형의 말을 따라 자신의 벼를 먼저 베기로 했어요. 형이 잘 익은 벼를 쓱쓱쓱 베면 동생이 차곡차곡 정리해서 벅단을 쌓았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다음 날에는 동생이 쓱싹쓱싹 벼를 베고 형이 영차영차 열심히 벼를 낱았어요. 형과 동생의 논 옆에는 벼단이 높게 쌓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형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우네 벼단이 우리 것보다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것을 조금 나눠 줄까요?”

“그래요. 하지만 아우가 안 받을 거예요.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씨 착한 형의 아내가 대답했어요.

“그것참 좋은 생각이예요.”

형은 달이 하늘 높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벼단을 지고 동생 논에 가져다 났어요.

한편 같은 날 밤, 동생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형님은 아이들이 많으니 우리 벼를 조금 더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세요. 하지만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 밤에 몰래 벼단을 가져다 놓으세요.”

동생은 자신의 벼단을 살금살금 형 논에 가져다 놓았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어? 이상하다. 벼단이 그대로인데?’



이야기 들려주기

동생도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안 되겠어. 오늘 밤 다시 벼단을 옮겨야겠어!’

그날 밤, 형은 어젯밤보다 더 많은 벼단을 지고 동생 눈에 가져다 뵈었어요.
동생도 어젯밤보다 두 배나 많은 벼단을 형 눈에 몰래 가져다 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형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 대체 어찌 된 일이지?’

벼단이 하나도 줄지 않았거든요.

동생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혀 줄지 않은 자신의 벼단을 쳐다뵈었어요.

‘오늘 밤에 더 많은 벼단을 갖다 놔야지.’

그날 밤, 동그란 보름달이 두둥실 하늘에 떠올랐어요. 형은 벼단을 가득 지고 동생의 논으로 걸어갔어요. 동생도 벼단을 가득 지고 영차영차 형의 논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 누구시오? 이 밤중에?”

동생 눈 쪽으로 가던 형이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어? 이 목소리는? 형님! 형님 아니세요?”

형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동생이 대답했어요.

그때 밝은 달빛이 벼단을 지고 있던 두 형제를 환히 비추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아니, 이 시간에 여기 어쩐 일이야? 그 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사실은 형님께 벋단을 더 드리고 싶어서 몰래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요.”

동생이 대답하자 형은 벋단이 줄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역시 내 아우네. 하하하!”

“혹시 형님도 계속 벋단을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아이고, 형님!
하하하!”

두 형제는 서로 부둥켜안고 함께 웃었어요. 그 이후로도 두 형제는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야기에 나온 형제는 무슨 일을 했나요? 맞아요. 벼농사를 지었어요. 봄에 벼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가 익어요. 농부들은 익은 벼를 쓱쓱쓱쓱 자르지요. 쓱쓱쓱쓱은 자르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이에요. 농부들은 자른 벼를 푹푹 묶어 두는데, 이게 벼단이에요. 농부들은 차곡차곡 쌓인 벼단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벼의 껍질을 벗긴 게 쌀이에요. 쌀에 물을 붓고 보글보글 끓이면 맛있는 쌀밥이 돼요. 벼와 벼농사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의좋은 형제’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의좋은 형제인 형과 동생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힘든 일은 내가 더 하려고 하고,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더 주려고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씨지요? 여러분도 형제들과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형제나 가까운 친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니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